

“임신은 새로운 부처님 잉태하는 일”

저출산고령화대책시민연대 생명포럼 열려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부처가 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고 보며, 이런 점에서 임신은 새로운 부처님을 잉태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해법을 부처님 가르침에서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시민연대는 2월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명포럼’을 개최했다.

“자녀는 삶의 축복인가, 부담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김승권 저출산·고령정책연구본부장의 ‘저출산의 심각성과 효율적 극복방안’이라는 기조발제에 이어 불교, 개신교, 가톨릭 3대 종교별 발

제자가 나서 각각의 입장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불교계 발제자로 나선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개인의 업식(業識)을 넘어선 공동의 업식에 의해 고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원인을 진단한 후 그에 합당한 처방을 내려 치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성제(四聖諦)’식 해결책을 모색했다.

고 교수에 따르면 오늘날의 저출산 현상은 육아에 대한 정부·사회적 무관심,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직장 현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 교수



저출산시민연대 포럼에서 불교, 개신교, 가톨릭 3대 종교 발제자들은 저출산에 대한 입장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는 “불교에서는 가정을 불성을 지닌 새로운 생명체가 있다는 ‘불성(佛性)의 탄생처’로 여기고 있다”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임신 중절을 하거나 출산을 감소하려는 것은 새로운 부처님의 탄생을 가로막는 행위이자 또 다른 악업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이 새로운 부처님을 잉태하고 불성을 양육한다

는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고 교수의 지적이다. 생명 존중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와 불임부부에 대한 출산지원, 국내임양 지원책 마련, 미혼 부모에 대한 인식 전환 유도 등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수경 기자 snoopy@buddhapia.com

환경 오계·바라밀 제정

불교환경연대 올 실천과제 확정

불자들은 앞으로 오계 외에도 환경오계를 지켜야 할 것 같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2월 23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환경오계, 환경육바라밀 제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불교환경연대는 올해 빙그릇운동과 사찰환경 조사·연구활동, 환경교육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특히 지난해 정토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빙그릇운동의 바탕을 이어받아 불교계의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사찰환경 개선을 위한 릴레이를 시리즈로 제작·배포하는

사업도 전개된다. 이와 함께 집중 실천과제를 선정해 사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불교환경연대는 산사축제·방생법회 등 사찰행사를 모니터링해 결과를 발표하는 등 불교계의 친환경 활동을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자연환경 수호를 위한 연대활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불교환경연대는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보선, 신복사 주지 세영,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을 새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박봉영 기자



“필리핀 이재민의 우산 되주세요” 대학생정토회와 한국JTS는 2월 23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필리핀 신시대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 ‘노란우산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은 집중호우로 인한 신시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자는 의미를 담은 것. JTS는 현재 사고현장에 답사팀을 파견해 현지 상황을 조사 중이다. 박봉영 기자

“새만금 국정조사 실시하라”

시민단체, 환경보고서 은폐 경위 해명 촉구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성효 스님과 문규현 신부, 김지하 시인, 등 13인은 2월 2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새만금 환경조사보고서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변명하고 무마하려고만 한다며 정·은폐한 경위를 밝히기 위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환경부의 환경조사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국무총리실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는 해양수산부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었다.

박봉영 기자

청소년 사경공모전 개최

파라미터, 4월15일까지 접수

파라미터청소년협회(회장 원태·이하 파라미터)는 3월 22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9회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을 개최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전국 불교종립 학교 재학생과 파라미터 청소년회원 및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신청서 및 사경지 배부는 2월 24일, 접수는 4월 15일까지다. (02)723-6165 이은희 기자

불교시민사회단체 대상 각 분야 프로그램 공모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불교계의 시민·사회운동과 불교발전을 위해 사업을 전개하는 비영리 불교단체를 대상으로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인권, 통일, 환경, 여성, 사회정책 개발, 노동 등이며, 복지 및 실행 분야는 제외된다. 공모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공무사업 계획서와 요약서, 단체소개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hslee@buddhism.or.kr)로 조계종 사회부에 제출해야 한다.

조계종 사회부는 정의성, 타당성, 파급력,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선정하며, 조계종단 대사회 사업과의 연계성, 사회정책 개발, 지속성 및 미래기여도를 평가해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02)2011-1820 박봉영 기자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100일 큰스님 법문

웰빙의 진정한 의미를 큰스님들의 법문으로 풀이하는 100일 법회가 열린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3월 7일~6월 14일 불교방송 법당 다보원에서 열리는 이번 법회는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방송 불교신문이 공동주최한다.

법사로는 혜정(법주사 회주) 보성(승광사 방장) 고산(쌍계사 조실) 정관(영주암 조실) 각성(부산 화엄사 주지) 월운(봉선사 조실) 무진장(동산불교대학장) 도영(조계종 포교원장) 지하(前 조계종 중앙종회회장) 정진(BBS ‘행복한 미소’ 진행자) 무심(대전 무상사 주지) 스님 등이 법문에 나선다.

매일 오전 11시 큰스님의 사자후를 만날 수 있으며 법회에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한 시간 동안 100일 기도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오륜행실도 목판 첫 공개

원주 치안산 명주사(주지 선험) 고 판화박물관이 조선 정조 21년(1796) 왕명에 의해 편찬된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4장을 발견해 최근 일만에 공개했다.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는 왕명에 의해 발행된 국민윤리교과서의 역할을 한 책으로 목판 원판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목판 4장은 선험 스님이 지난해 9월에 인수해, 최근 확인했다. 김두식 기자

“1번 줄기세포는 환자맞춤형”

김수 연구원, 범불교국민연대회의서 주장

황우석팀 연구후원을 위한 범불교 국민연대(이하 황우석 범불교국민연대)는 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진행상황 보고 및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황우석 연구팀 김수 연구원(서울대 수의대)은 “서울대조사위가 1번 줄기세포를 처녀생식에 의해 생성했다고 발표했으나 확정적으 예기할만한 근거는 없다”며 “1번 줄기세포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라고 확실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또 “황 박사를 비롯한 우리 연구팀은 체세포 배아줄기세포가 바뀌지 않았으므로 금남로 연구소의 주장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의정 ‘동네수혈’ 대표는 “모든 정황이 황우석 쪽이기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며 “황우석 박

사의 그간의 연구 성과를 지켜내는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우석 범불교국민연대는 공동대표 일동 명의로 ‘대통령께 드리는 결의사항’을 채택하고 △검찰의 공정하고 신중한 조사 △황우석 박사팀에게 연구 재연기회 부여 △새튼 교수와 형평성을 맞추고 조속한 결과 도출 △특허권 방어를 위한 사전 조치 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광주서 ‘특허수호’ 촛불행사

황우석과 함께하는 국민연함은 2월 18일 광주 금남로 민주의 종각 앞에서 ‘줄기세포 특허 수호, 생명공학 연구촉진을 위한 촛불행사’를 개최했다.

이준엽·박봉영 기자

아란야·나란타 대안학교

교계 최초로 교육청 인가

불교계 복지시설 두 곳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 기관으로 선정됐다. 불교계에서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과 자양사회복지관 두 곳은 3월에 ‘아란야 대안학교’와 ‘나란타 대안학교’를 개교한다. 이들 대안학교는 적성에 맞지 않는 교과과정이나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가르치게 된다. 학생이 원래 소속된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등동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양사회복지관의 ‘나란타 대안학교’는 중학교 1~3학년 2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계체제를 통한 명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02)458-1664-5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아란야 대안학교’ 역시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음악심리, 심성수련 등의 교과목을 가르친다. (02)421-6077

이들 대안학교를 통해 학업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 위탁교육 신청을 득하고 위탁준비교육을 2주간 이수하면 된다. 이은비 기자

불교사회복지사업 출범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불교복지의 방향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불교사회복지연구소가 발족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지현)은 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출범

식 및 <불교사회복지 실천과제와 전략> 발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또 연구소 출범식에 맞춰 <불교사회복지 실천과제와 전략>서를 발간해 선보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연구위원과 자문위원 20여 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도 열었다. 이은비 기자

2006학년도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수강생 모집

명상(冥想) 기(氣)치유사 수련생 모집

인간 심신의 안정을 통해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고도의 “마음치유법” 자연치유 능력 활성을 돕는 놀라운 건강법 소개
접수기간 : 2006년 2월 1일부터 ~ 3월 8일 / 개강일시 : 2006년 3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 ◆ 교육기간 : 2학기 과정 ◆ 강의시간 : 수요일 오후 2시 - 4시 50분 ◆ 담당교수 : 박 세준
- ◆ 교수약력 :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기학전공) 박사 · 포천중문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외래교수
- ◆ 학기당 학습비 : 800,000원

● 교육목표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으나 본 교육과정에서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소우주로 보고 이를 우주의 변화현상 속에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 즉 인간의 심신의 안정을 통해 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선천적·후천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고도의 “마음치유법”을 통하여 기치유(氣治癒)(healing)되는 기능성장애, 통증제어, 각종 증상을 치유 개선할 수 있는 자연치유 능력 활성을 돕는 놀라운 건강법에 대해 교육 할 것이다.

● 강의내용

1. 명상(冥想)이란 무엇인가?
2. 명상치유(영적 프로그램)
3. 심리치유(심리적이완, 치유 에너지 증폭)
4. 심리요법(내적 심리 프로그램)사이먼튼요법+활선법
5. 신체적 운동과 기치유 동공
6. 명상의 실천수행 1 - 사념처(위빠사나)사선법정법
7. 명상의 실천수행 2 - 기공수련의 응용(병원실습)
8. 명상의 실천수행 3 - 기공수련의 응용(병원실습)
9. 명상치유 1 - 업력과 유태자의 관조
10. 명상치유 2 - 자기긍정을 통한 무아의 세계
11. 명상치유 3 - 건강상태와 건강의식 내시(오장육부)
12. 명상치유 4 - 자기 자의적 명상 치유법 전개
13. 사선팔경(四禪八定) 석가기공(釋迦氣功)
14. 총괄평가

태권도

임상심리경력자에 한하여(1년~3년)시험자격이 주어지므로 실습위주의 교육, 보건복지부-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산업인력공단-임상심리사... 2급개설, 병무청- 2008년부터 임상심리사배치 신체검사서 인정검사 주요강화.이 외에도 가정폭력상담센터, 경찰서, 성폭력, 청소년비행, 약물오용, 미혼모 등 상담사로서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http://dgucc.dongguk.edu> → 관련기관 → 사회교육원 → 특별교육과정 → 명상기치유사과정,또는 한글로 동국대사회교육원으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국대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 : 전화 0212260-3728~9